

## 중의우세병종의 분류 및 고찰

김경한<sup>1)</sup> · 김원영<sup>2)</sup> · 고유미<sup>1)</sup> · 기유종<sup>2)</sup> · 이선동<sup>3)</sup>\*

<sup>1)</sup>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교실, <sup>2)</sup>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sup>3)</sup>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Classification and Review of Diseases tha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s Better at Treating

Kyeong Han Kim<sup>1)</sup>, Wonyoung Kim<sup>2)</sup>, Youme Ko<sup>1)</sup>, Youjong Gi<sup>2)</sup> & Sundong Lee<sup>3)</sup>\*

<sup>1)</sup> Dept.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2)</sup> Dept. of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sup>3)</sup> Dept.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classify diseases tha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is better at treating.

**Method :** Literature was searched on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literature type, published date and research method. Studied six types of research papers and four types of published books.

**Results :** Experts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medical records were studied retrospectively, and double-blind method was used in selecting diseases that TCM was better at treating. There were a total of 372 diseases that TCM was better at treating. By the KCD classification, 45 were in gastrointestinal (12.1%), 39 in urogenital (10.5%), 36 in circulatory (9.7%), 35 in musculoskeletal or connective tissues (9.4%).

**Conclusion :** Total of 372 diseases were classified as diseases that TCM was better at treating, and if the results are used adequately, the values of western and TCM can be maximized and benefit the government, patients and the medical practitioners.

**Key words :** Disease Classificati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tter Treating

### I. 서론

의학은 크게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으로 구분하며 서양의학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동일한 학문적 체계를 갖

고 있지만, 전통의학은 각 국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서양의학과 전통 의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전통 의학의 제도, 육성 정책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서양의학 중심으로 전통 의학은 보완 대체 역할을 하지만<sup>1)</sup> 중

• 접수 : 2015년 7월 30일 • 수정접수 : 2015년 8월 16일 • 채택 : 2015년 8월 17일

\*교신저자 : 이선동,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33-730-0665, 팩스 : 033-730-0653, 전자우편 : sdlee@sangji.ac.kr

국, 한국은 국가가 전통의학 의학을 법과 제도로 보호하며 전통의학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통의학인 중의학의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전통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다<sup>2)</sup>. 서양학과 전통의학이 동시에 존재하는 의료체계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양학과 전통의학은 학문체계와 생명관이 다르기 때문에<sup>3)</sup> 치료에 강점을 가지는 질병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서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서양학을 전공한 서의도 중의 치료가 가능하며, 전통학을 전공한 중의사가 서의 치료가 가능한 중국에서는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 의학으로 치료효과가 더 좋은 질병의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중의 치료로 더 효과적인 질병군을 중의우세병종(中醫優勢病種)이라고 한다<sup>4),5)</sup>. 중의우세병종 연구는 중의학의 표준화 및 근거중심 의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의료비용의 감소와 의학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sup>6)</sup>.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의학이 서양의학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한 질병에 대하여 임상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sup>7-16)</sup>. 이에 연구자들은 최근 발표된 중의우세병종자료를 통해 중의우세병종을

분류했으며 이들의 의학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II. 방법

### 1. 연구대상 자료의 선정 및 수집

첫 번째 단계로 중의우세병종의 선행연구를 검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의 中國學術期刊全文數據庫(China Academic Journal, CAJ)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중의(中醫) 또는 임상(臨床)과 우세병종(優勢病種)의 단어 조합을 사용하였다. 검색은 2015년 6월에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00년 이후부터 2015년 5월까지 발표된 연구로 하였다. 또한 검색된 연구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중의우세질환에 대한 단행본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 2. 자료선정과정

CNKI에서 1차로 검색된 자료는 총 35편이었다. 그 중 중복 논문 2편을 제외하였고 1차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의우세병종과 관련 없는 12편의 논문을 제외하였다. 2차로 전문을 정독한 후 중의우세병종이 제시되지 않은 15편의 논문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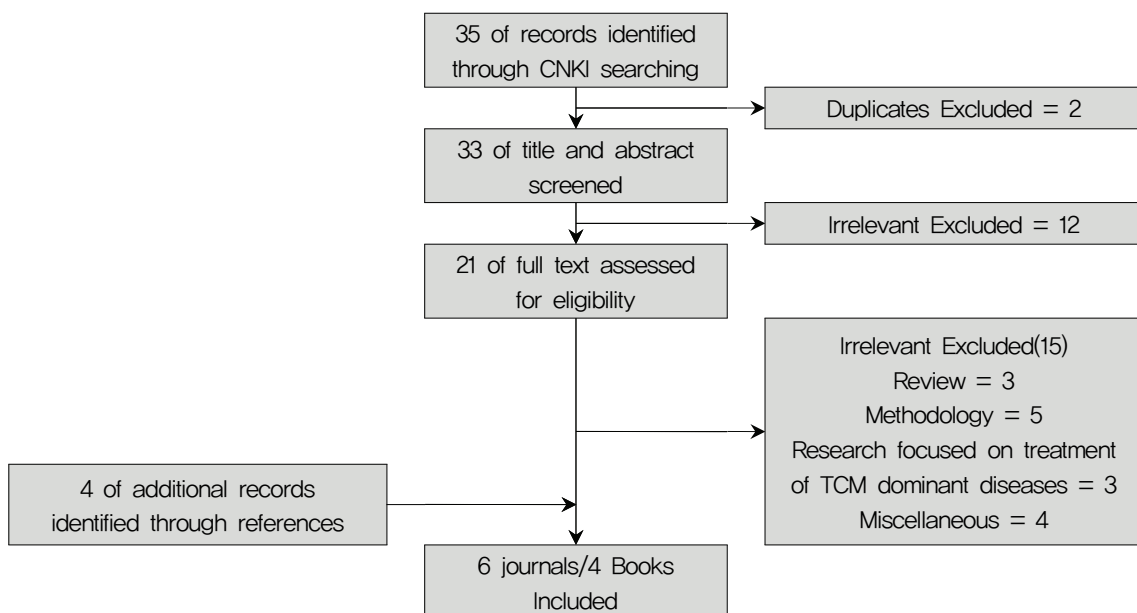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research selection

총 35편 연구의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중의우세병종이 직접 제시된 4편의 서적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총 10편의 연구 및 단행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Fig 1).

### 1. 분석대상 자료특징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의 문헌은 2001년에 1편, 2007년에 1편, 2011년에 2편, 2012년에 2편, 2013년에 4편 발표되었다.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가 6편, 전문기관에서 단행본으로 발표한 연구가 4편이었다.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 논의를 통

## III. 결 과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arched Database

No	Type	Author	Published Date	Research Method		Number of people	Number of Diseases	Remarks	
1	Journal	Yan JH	2001	전문가 설문	중국 위생부에서 제공한 “위생부 전국 도시 의원 1998년 입원 질병” 중 상위 10위의 질병+1994년 “전국 중의의원 병종 질적 관리 현황조사” 중 88개 중의원의 병종조사에서 제시된 질환 상위 50개를 선정하여 임상경력 15년 이상 부주임급 이상 임상의 중의/서학중/서의 3군으로 나눠 설문을 진행	중의35/40 서학중34/40 서의36/40 (120)	39 (19/17/3)	전과	
2		JIANG WD	2007	후향적 차트 리뷰	절강중의약대학 제1부속병원 입원환자 DB의 2006년도 결과 중 상위 50개 질환에 대한 리뷰 진행	N/A	50		
3		YANG HF	2012	후향적 리뷰	2010년 중국중의기본현황조사 중 852개 병원(중의의원 470, 중서의결합의원41, 민족의원19, 중합병원275, 전문병원47)+ 국가 중의약관리국이 인정한 259종 우세병종 질환 목록에서 각 과별 상위 5 혹은 10위내의 질환	N/A	60		
4		TCM Research Team in Jiangsu Province	2013	전문가 설문	강소성 중의약학회 및 중서의결합학회 내과별 전문가 위원회 회원 중 임상경력이 풍부하고 직급이 중급이상인 자에 한해 설문을 진행	347/479 (479)	40		내과
5		TCM Research Team in Jiangsu Province	2013	전문가 설문	강소성 중의약학회 및 중서의결합학회 부인과, 소아과 전문가 위원회 회원 중 임상경력이 풍부하고 직급이 중급이상인 자에 한해 설문을 진행	부인과32/53 소아과20/35 (88)	10/10		부인과 소아과
6		TCM Research Team in Jiangsu Province	2013	전문가 설문	강소성 중의약학회 및 중서의결합학회 외과, 골상과, 향문외과, 피부과 등 전문가 위원회 회원 중 임상경력이 풍부하고 직급이 중급이상인 자에 한해 설문을 진행	124/206 외과53/124 골상과35/124 피부과36/124 (206)	15/10/5		외과 골상과 피부과
7	Book	The medical department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전문가 논의	중의약 관리국에서 임명한 29개 중의중점진과팀이 계통별 중의우세병종 목록을 작성하여, 각 병종에 적합한 인력을 선정하여 진료권고안 개발팀을 조직,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다년도 중의우세병종에 대한 진료권고안 개발 및 출판	N/A	104	전과	
8			2012				105		
9			2011				95		
10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	2011	임상 연구	중국중의과학원에서는 ‘중의우세병종 임상연구전문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법, 전향적 코호트 연구 등의 방법으로 우세병종 검증	N/A	33	전과	

한 증의우세병종 자료가 8편이었고, 병원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거나 임상연구를 통한 증의우세병종 연구가 2편 이었다. 진료 과를 구분하지 않은 증의우세병종 자료가 7편이었고, 특정과(내과, 부인과/소아과, 외과/골상과/피부과)를 구분한 증의우세병종 연구가 3 편이었다(표 1).

## 2. 계통별 증의우세병종의 종류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의 연구에서 제시된 증의우 세병종은 중복된 질환을 제외하고 총 372개였다. 증의 우세질환명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표할 수 있는 증상명 또는 질병명으로 전환하고 KCD 질병 분류법으 로 분류하였다(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 of Diseases tha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s Better at Treating

Classification	Diseases(TCM Diseases)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HIV감염 발병 지연(延緩HIV感染者發病), 급·만성 바이러스성 간염(急·慢性病毒性肝炎), 다제내성 결핵(肺癆), 대상포진(蛇串瘡), 디프테리아(白喉), 림프절 결핵(瘰癧), 만성 B형 간염(肝積病), 만성 세균성 이질(慢性細菌性病疾), 무좀(腳濕氣病), 수족구병(手足口病), 유행성 이하선염(疔腮), 유행성 출혈열[流行性出血熱(輕型)], 족저사마귀(趾疣), 패혈증 고열(高熱), 편평사마귀(扁瘡), 홍역(麻疹)
신생물 (C00-D48)	간암(肝癌), 결장 악성종양(結腸惡性腫瘤), 결직장암(結直腸癌),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髓毒癆), 골수성 백혈 병(骨髓性白血病), 식도암(食管癌), 악성림프종(惡性淋巴瘤), 위암(胃癌), 위암 전암병변(胃脘痛), 유방 양성종 양(乳房良性腫瘤), 유방암(乳腺癌), 전립선암(前列腺癌), 종양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腫瘤術後化療), 췌장암 (胰腺癌), 폐암(肺癌)
혈액 및 조절 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 하는 특정장애 (D50-D89)	Henoch-schönlein purpura(紫癜風), 백혈구 감소증(白細胞減少症), 소아 henoch-schönlein purpura(小兒紫癜), 자반(紫癍), 재생불량성 빈혈(再生障礙性貧血), 철결핍성 빈혈(萎黃),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紫癍病)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E00-E90)	2형 당뇨병(消渴病), 간렌즈핵 변성(肝豆狀核變性), 갑상샘염(癭痛), 갑상선 질병(癭病), 고지혈증(血濁病), 다낭성 난소 증후군(不孕病), 당뇨병성 눈질환(消渴病目病),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消渴病痺症), 당뇨병성 말 초혈관 병변(脫疽病), 당뇨병성 발병(脫疽病), 당뇨병성 설사(消渴腸病), 당뇨병성 신경인성 방광(消渴淋症), 당뇨병성 신장 질환(消渴病腎病), 당뇨병성 위마비(消渴胃病), 당뇨병성 인지기능 저하(消渴呆症),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땀분비 이상(消渴汗症), 성조숙증(性早熟), 조기 폐경(卵巢早衰)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ADHD(兒童多動症), 강박장애(鬱病), 경도인지 장애(健忘), 경조증(狂病), 공기연하증(噎氣病), 공황장애(驚悸), 기능성 복통(腹痛病), 노년기 우울증(老年鬱證), 만성피로증후군(慢性疲勞綜合症), 발기부전(陽痿), 범불 안장애(鬱病), 불면증(不寐病), 신경성 식욕부진증(厭食), 심장신경증(怔忡), 우울증(鬱病), 자폐증(孤獨症), 조현병(癲病), 틱장애(兒童抽動障礙), 혈관성 치매(癡呆), 히스테리구(梅核氣病)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가성구마비(假性延髓麻痺), 기면증(多寐病), 길랭-바레 증후군(痿病), 노년 본태성 진전(老年顫證), 뇌성마비 (五遲五軟五硬), 뇌전증(癲癇), 다발성 신경염(麻木), 다발성경화증(痿病), 삼차신경통(面痛病), 소아 뇌전증 (小兒癲病), 소아 수두증(解顛病), 안면신경마비(面癱), 알츠하이머병(呆病), 원발성 두통(頭痛病), 이상근 증 후군(梨狀肌綜合症), 일과성 대뇌허혈(短暫時性大腦缺血), 임신편두통(妊娠偏頭痛), 자율신경 실조증(老年汗病), 정상뇌압 수두(腦積水), 측두엽간질(癇病), 파킨슨병(顛病), 편두통(頭痛病), 폐쇄 수면 무호흡 증후군(鼾證)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갑상샘 안병증(癭病眼病), 갑작스런 시력 상실(暴盲), 고도근시단순형 황반출혈(高度近視單純型黃斑出血), 근 시(近視病), 노년성 백내장(圓翳內障), 망막색소변성증(高風雀目), 망막정맥폐쇄(暴盲), 바이러스성 각막염(聚 星障病), 비동맥염성 앞허혈시신경병증(目系暴盲), 상공막염(火疳), 시신경위축(青盲), 안검염(臉弦赤爛), 안 구건조증(白澀症), 안근마비(目偏視), 안정피로(肝勞), 알레르기 결막염(目癢病), 약시(弱視), 연령관련 황반 변성(視瞻昏渺), 일차성 개방우각내장(靑風內障), 중심성삼출성맥락망막병증(視直如曲), 중심성장액성맥락 망막병증(視瞻昏渺), 만성결막염·표증점상각막염(白澀), 홍채모양체염(瞳神繫小)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H60-H95)	돌발성 난청(暴聾), 비화농성 중이염(耳脹), 이명(耳鳴)

Classification	Diseases(TCM Diseases)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환자의 혈관재건 후 협심증(卒心痛), 관상동맥 죽상경화증(胸痹), 뇌경색 회복기(中風病恢復期), 뇌경색(中風病), 뇌출혈(中風病), 뇌혈관 질환 후유증(腦血管後遺症), 뇌혈관병 NOS(未特指腦血管病), 대뇌동맥 폐색(大腦動脈閉塞), 동기능부전증후군(遲脈證), 류마티성 심장병(心痹), 만성 심부전(心衰病), 만성 안정형 협심증(胸痹心痛病), 만성 폐성심(肺心病), 바이러스성 심근염(心痺), 발작성 심방세동(促脈證), 방실차단(結脈證), 부정맥(心悸病), 부정맥-심실조기수축(心悸), 원발성 고혈압(眩暈病), 저혈압(低血壓), 죽상동맥경화증(動脈粥樣硬化), 중풍 후 견수증후군(中風後肩痛), 중풍 후 경련성마비(中風後痙攣性癱瘓), 중풍 후 불안상태(中風後焦慮狀態), 중풍 후 손기능 장애(中風後手功能障礙), 중풍 후 언어기능 장애(中風後言語功能障礙), 중풍 후 연하곤란(中風後吞嚥功能障礙), 중풍 후 인지기능장애(中風後認知功能障礙), 중풍 후 절박성 요실금(中風後急迫性尿失禁), 척추기저동맥부전(眩暈-椎基底動脈供血不足), 추동맥형경추병(椎動脈型頸椎病), 치핵(痔病), 폐쇄성 죽상동맥경화증 未潰期(脫疽病未潰期),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股腫病), 허혈성 심장질환(缺血性心臟病), 확장성 심근병증(心脹病)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급·만성 인두염(急·慢性咽炎), 급·만성 편도염(急·慢性扁桃體炎), 급성 기관지염(急性支氣管炎),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外感高熱), 기관지폐렴(支氣管肺炎), 기흉(氣胸), 만성 기관지염 완해기(慢性支氣管炎緩解期), 만성 비염(鼻塞), 만성 폐쇄성 폐질환(肺脹病), 만성 후두염(慢喉暗), 만성폐쇄성폐질환 안정기(肺脹病), 부비동염(鼻淵), 비중증 지역사회 획득 폐렴(溫肺熱病), 상기도 감염(上呼吸道感染), 소아 급성 기관지염(小兒急性咳嗽病), 소아 기관지천식(小兒哮喘), 소아 만성 기침(小兒慢性咳嗽病), 소아 재발성 호흡기 감염(小兒反覆呼吸道感染), 소아 편도염(乳蛾), 소아 폐렴(肺炎哮喘病), 신종 인플루엔자 A(H1N1)(時行感冒), 알레르기성 비염(鼻鼈), 유행성 감기(流行性感冒), 자연기흉(自發性氣胸), 재발성 호흡기 감염(反復感冒), 천식(哮喘病), 폐간질 섬유화(肺痿病), 폐기종 완해기(肺氣腫緩解期), 폐렴(風溫肺熱病)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9)	간경변증(積聚), 간경화 대상기(肝硬化代償期), 간경화 복수(鼓脹病), 궤양성대장염(潰瘍性大腸炎), 급·만성 위염(急·慢性胃炎), 급·만성 췌장염(急·慢性胰腺炎), 급성 장염(泄瀉), 급성 충수염(急性闌尾炎), 기능성 소화불량(胃病病), 기능성 항문직장 통증(功能性肛門直腸痛), 노년 기능성 변비(老年便秘), 담관 결석(膽石症), 담낭염(膽囊炎), 대장 용종(大腸息肉), 만성 간질환(慢性肝病), 만성 설사(久痢), 만성담낭염(慢性膽囊炎), 방사선 직장염(腸澼), 변비(便秘病), 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便秘病), 불완전 장폐색(腸結病), 비알콜성 지방간염(非酒精性脂肪性肝炎), 상부 위장관 출혈(血脫), 서행성변비(便秘病),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泄瀉病), 소아 기능성 변비(小兒便秘), 소아 설사(小兒泄瀉病), 소화성 궤양(胃瘍), 식도열공헤르니아(食管裂孔疝), 알코올성 간 질환(酒精性肝病), 약인성 간손상(藥物性肝損傷), 영아 소화불량(乳積),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黃疸病), 위-식도 역류 질환(吐酸病), 위십이지장 궤양(胃十二直腸潰瘍), 위십이지장염(胃十二直腸炎), 위하수(胃緩), 자가면역성 간염(自身免疫性肝炎),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口瘡), 지방간(肝癖), 직장 탈출증(脫肛病), 치루(肛漏病), 치열(肛裂), 턱관절의 질환(顛下頷骨關節病), 항문직장 농양(肛癰)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 (L00-L99)	건선(白疔), 결절성 양진(頑濕聚結病), 경부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頸癰), 기미(皰黑斑病), 눈꺼풀 습진(風赤瘡癩), 다발성종기(癬病), 다형(태)광발진(日曬瘡), 단독(丹毒), 만성 두드러기(癩疹), 백반증(白駁風), 비후성 반흔과 켈로이드(蟹足腫病), 습진(濕瘡), 아토피피부염(四彎風病), 여드름(粉刺), 원형 탈모증(油風), 장미색 비강진(風熱瘡), 지루성피부염(面遊風), 피부궤양(瘡瘍), 하지의 궤양(臍瘡), 항문 습진(肛門濕瘍病)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강직성 척추염(大偻), 결합조직병(結締組織病), 경추 신경근병증(項痹病), 경추병(項痹病), 경피증(皮痹), 노년 골다공증(骨痿), 다발성 근염 및 피부근염(肌痹),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骨蝕), 류마티스성 관절염(類風濕性關節炎), 만성 골수염(附骨疽), 만성적 腰薦부의 연조직 손상(腰肌勞損), 무릎연골연화증(髌骨軟化症), 무지 외반증(踇外翻), 발꿈치 통증(跟痛症), 베체트병(狐惑病), 성인 발병성 스틸병(熱痹),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骨蝕), 쇼그렌 증후군(燥痹), 수지굴근건 건막염(筋結), 슬관절 강직증(膝關節僵硬), 슬관절 외상성 활막염(膝關節創傷性滑膜炎),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膝痹病), 요배부 근막염(腰背肌筋膜炎), 요추 추간관 탈출증(腰痛病), 요추 퇴행성관절염(腰椎骨性關節炎), 유착성 관절낭염(肩凝症), 재발성 류마티즘(周痹),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陰陽毒), 제 3요추 횡돌기 증후군(第三腰椎橫突綜合征), 전장관절증후군(胯骨錯縫), 테니스 엘보(網球肘), 통풍(痛風), 퇴행성 관절염(骨痹), 퇴행성 요추 전방전위증(退行性腰椎滑脫症), 흉추 후관절 증후군(胸椎錯縫)
비뇨생식기 계통의 질환 (N00-N99)	1차성 신증후군(水腫病), Diminished ovarian reserve(月經後期), Henoch-schönlein purpura 신염(紫癜性腎炎), IgA신증(腎風), 갱년기 증후군(絕經前後諸病), 골반염(盆腔炎), 골반염성 질병 후유증(帶下病), 과소월경(月經過少病),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腎風), 기능성 자궁출혈(經期延長病), 나팔관 염증성 불임(不孕病), 난소 초콜릿 낭종(癥瘕), 대하증(帶下), 막성 사구체신염(水腫病), 만성 간질성 신염(腎勞), 만성 방광

Classification	Diseases(TCM Diseases)
	염(慢性膀胱炎), 만성 사구체신염(慢性腎炎), 만성 신부전(腎衰病), 만성 신우신염(慢性腎盂腎炎), 만성 전립선염(精濁病), 무배란성 기능성 자궁출혈(月經過多症), 배란기 출혈(經間期出血), 습관성 유산(滑胎病), 신장-요관 결석(腎輸尿管結石), 여성 불임증(女性不孕症), 요도증후군(尿頻病), 요로감염증(淋證), 요산성 신병증(痛風腎病), 월경 증후군(月經前後諸病), 월경전 긴장 증후군(月經前後諸病), 월경통(痛經), 유방염(乳癰病), 자궁근종(癥瘕), 자궁내막증(痛經病), 자궁선근증(痛經病), 잠복형 사구체신염(尿血病), 재발성 요로감염(勞淋), 정자과소증·정자무력증(男性不育症), 주기성 유선병증(乳腺增生)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나팔관 임신 未破損期(異位妊娠病未破損期), 산후 관절통증(產後痹), 인공 유산(人工流產), 자궁 외 임신(異位妊娠), 절박유산(胎動不安病), 태아 발육 지연(胎萎不長病)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신생아 설사(初生兒腹瀉), 신생아 황달(新生兒黃疸)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소아근육성 사경(小兒肌性斜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 (R00-R99)	급·만성 기침(急·慢性咳嗽病), 딸꾹질(呃逆病), 소아 다한증(小兒汗病), 소아 식욕 부진(小兒厭食病), 소아 황달(胎黃病), 어지러움(眩暈), 전당뇨병(脾瘕)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견쇄관절 탈구(肩鎖關節脫位), 경골 비골 골절(脛腓骨骨折), 급성 요추 염좌(急性腰扭傷), 낙침(落枕病), 뇌진탕(腦髓震蕩), 늑골 골절(肋骨骨折), 단순 흉·요추 골절(單純胸腰椎骨折), 대퇴골 경부 골절(股骨頸骨折), 대퇴골 전자간 골절(股骨粗隆間骨折), 두부 외상(頭部外傷), 몬테기아 골절(孟氏骨折), 발목염좌(踝關節扭傷), 불완전 척추손상(脊髓損傷(不完全性)), 상완골 외과경골절(肱骨外髌頸骨折), 상완골 원위 골절(肱骨髁上骨折), 손 손상 후 기능 장애(手損傷後功能障礙), 쇄골골절(鎖骨骨折),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膝關節內側副韌帶損傷), 슬관절 반월판 손상(膝關節半月板損傷), 외상성 고관절 후방 탈구(外傷性髖關節後脫位), 외상성 뇌손상(頭部內傷病), 원위 요골 골절(橈骨遠端骨折), 종골 골절(跟骨骨折), 척추 골절(脊柱骨折), 하지 골절(下肢骨折), 화상(燒傷)
질병이환 및 사망의 원인 (V01-Y98)	독사에 물림(毒蛇咬傷病)

### 3. 중의우세병종의 KCD분류법에 의한 질환 수 및 비율

중의우세병종을 구분한 후 각 질환 수 및 비율을 계산한 결과 소화기계통 질환이 45개(12.1%),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39개(10.5%), 순환기계 질환이 36개(9.7%),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 35개(9.4%)순으로 많았다(표 3).

## IV. 고찰

중국은 2000년 이후 중의학의 현대화, 표준화, 세계

화를 통해 중의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sup>17)</sup> 중의우세병종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의우세병종은 서양의학에 비해 중의가 질병치료 및 관리 등에서 우세한 병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첫째 특정 질환에 대해 유효한 서양의학의 치료방법이 없는 반면, 중의는 비교적 완성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치료효과도 좋은 병종, 둘째는 특정질환에 대해 서양의학은 부작용이 큰 반면, 중의는 이러한 폐해가 보고되지 않은 병종, 셋째로 서의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치료 할 수 없는 난치병 또는 일부 중대질환의 특정 병리단계에 대해 중의가 현저하게 우세한 효과를 나타내는 병종을 뜻한다<sup>6),18)</sup>.

중의우세병종은 단순 연구뿐만 아니라 중의전문과개

Table 3. Number and Proportions of Diseases tha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s Better at Treating by KCD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Diseases that TCM is better at Treating	
	N	Ratio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16	4.3
신생물(C00-D48)	15	4.0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7	1.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18	4.8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0	5.4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23	6.2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H00-H59)	23	6.2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H60-H95)	3	0.8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36	9.7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29	7.8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9)	45	12.1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L00-L99)	20	5.4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35	9.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00-N99)	39	10.5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6	1.6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2	0.5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1	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R00-R99)	7	1.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26	7.0
질병이환 및 사망의 원인(V01-Y98)	1	0.3
합계	372	100.0

설, 우세병종실천평가, 연구결과의 환류 등 정책 사업에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sup>6)</sup>. 또한 전반적인 중의진료 수준 향상, 중의진료 효율성 제고,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의임상치료의 표준화 등 중의학계의 자발적 창의능력이 발휘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목적도 있다<sup>6),18)</sup>. 중국정부에서도 2001년 중의약사업 “십오”계획(中醫藥事業 “十五”計劃), 2006년 중의약사업발전 “십일오”계획(中醫藥事業發展 “十一五”計劃), 2006년 중의약창신발전계획강요(中醫藥創新發展計劃綱要2006-2020年) 등의 계획을 통해 중의우세병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sup>6)</sup>.

중국에서 중의우세병종을 활용하여 실제로 사회적 의료비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위해시에서는 중의우세병종의 단일치료비는 서의치료비의 74% 수준이었으며<sup>6)</sup>, 산둥에서는 중의우세병종 가격개혁으로 의료비가 월 416만 위안이 절약된 것으로 보고<sup>19)</sup>되었다. 이외에도 성도시에서는 2014년 7개

의 중의우세병종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sup>6)</sup>. 중의과학원연구에 의하면 중의우세병종연구가 진행된 2005-2011년 사이에 직할병원의 진료환자수가 매년 10% 증가하였고, 퇴원 환자 수는 매년 8%씩 증가하였으며, 또한 각 병상회전율도 증가했고, 평균입원수도 매년 조금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중요 중의우세병종프로젝트로는 중국 중의과학원 프로젝트, 세계보건기구 후원 프로젝트, 국가중의약관리국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sup>6)</sup>, 조사방법은 전문의 설문조사, 행정설문조사, 진료기록 후향적 조사, 이중맹검법의 역학연구나 문헌계량 등이 있다<sup>18)</sup>.

본 연구에서는 중의우세병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총 372개의 중의우세병종을 제시하였다<sup>7-16)</sup>. 중의우세병종은 소화기계통 질환이 45개로 가장 많았고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이 39개로 뒤를 이었다. 중의우세병종질환의 중요 특성을 정리해 보면 기능성 질병(심장 신경증, 습관성 변비,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바이러스

성 감염질환(유행성감기,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등), 만성단계 혹은 회복단계(만성 위염, 만성 사구체 신염, 만성 기관지염 회복단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원인 불명 혹은 병인병리가 복잡한 질환(갱년기 증후군, 저혈압 등)에서 중의가 우세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질성 질환이거나 병의 원인이 단순하고 병변이 명확한 질환, 또는 급성 질환에서는 서양의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이처럼 중의학이 다양한 질환 또는 질병단계에서 서양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중의학과 학문적 체계나 생명관이 유사한 한국 한의학의 의료이용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인 통증질환이 전체의 60.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일부 질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발목 염좌, 허리 염좌와 같은 단순 염좌와 근육부상의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1), 22)</sup>. 따라서 향후 한방의료 이용이 전통 및 관습적이 아닌 한의우세병종의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이중맹검법 등의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결과도 있지만 각 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진료기록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특정지역(절강성, 강소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혼재되어 있고, 전 과를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와 내과, 부인과, 소아과, 외과, 골상과, 피부과 같은 특정과 중에서 중의우세병종을 도출한 연구가 함께 분석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의우세병종의 연구가 아직 초보적 단계로 연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중국의 중의우세병종연구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내 의료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중의약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의우세병종을 통하여 중의약의 저변확대와 사회적 의료비용절감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역사, 정치, 문화 등의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의학과 한의학은 유사한 학문적 체계와 생명관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중의우세병종 같은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한의학에 적합하고 유익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목적에 맞는 중의우세병종 6종의 논문과 4종의 단행본을 최종 참고자료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의우세병종선정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전문가설문조사 및 논의, 병원진료기록의 후향적 분석방법, 임상연구 등을 사용되었으며,
2. 최종 참고자료에서 제시된 중의우세병종은 중복질환을 제외하고 총 372개였다.
3. 중의우세병종을 KCD로 분류한 결과 소화기계 질환이 45개(12.1%),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39개(10.5%), 순환기계 질환이 36개(9.7%),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질환 질환이 35개(9.4%)순이었다.

중의우세병종분야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 연구방법도 대부분 근거가 낮다. 그러나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인 중의학과 한의학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국과 한국의 의료현실에서는 상당한 의학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중의우세병종의 연구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두 의학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고, 정부 및 환자의 의료비부담의 감소가 가능하며 또한 치료효과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부르스 제이 프리드, 로라 엠 게이 도스 저. 지역보건연구회 역.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3
2. 中华人民共和国憲法. 제 21-25조
3. 전세일. 보완대체의학. 계축문화사. 2004
4. 贾謙, 仲海亮. 保持中醫特色, 弘揚中醫優勢. Journal of Capital Normal University(Social Sciences Edition). 2008;161-166
5. 王學軍, 孫伟毅. 发挥中醫優勢 打造特色专科. Chinese Journal of Management in Chinese Medicine. 2008;2(97):97-99



6. 한국한의학연구원. 중국 중의우세병종 연구현황. 2014.
7. Yan JH. A Survey of Specialists on Kinds of Diseases Responding Specially to TCM Treatment and Theoretical Origin. JIANGS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1;22(9):1-4
8. JIANG WD, JI CH, HU QW. Analysis of Dominant Diseases of TCM for inpatient of TCM hospital. Zhejiang Statistics, 2007:24-25
9. YANG HF, CUI ZW, WANG M, ZHAO Q. 我国中医优势病种分布状况及特点.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285-287
10. TCM Research Team in Jiangsu Province. Survey on Dominant Diseases of TCM and integrated medicine of internal medicine in Jiangsu Province. Jiangs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9 42132
11. TCM Research Team in Jiangsu Province. Survey on Dominant Diseases of TCM and integrated medicine of surgery in Jiangsu Province. Jiangs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10, 42100
12. TCM Research Team in Jiangsu Province. Survey on Dominant Diseases of TCM and integrated medicine of gynaecology and paediatrics in Jiangsu Province. Jiangs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11, 42068
13. 国家中医药管理局医政司. 22个专业95个病种中医诊疗方案(合订版) 最终版. 2010
14. 国家中医药管理局医政司. 24个专业105个病种中医诊疗方案. 2011.
15. 国家中医药管理局医政司. 24个专业104个病种中医诊疗方案. 2012.
16. 中国中医科学院. 中医优势病种研究(一). 中国中医药出版社 第1版). 2011
17. 옵니허브북경연구소(기초조사보고서). 중의약현황 및 주요 중의약정책과 법규. 2013
18. 黄亚博, 冯广清. 中医优势病种调查方法学研究及其应用评价. 江苏中医药, 2012;44(12):1-3
19. 鲁辰甫. 山东中医优势病种收费改革两月节约416万元. 中国中医药报. 제1면. 2014. 8. 22
20. 邓铁涛. 中醫優勢病種专家调查及其理论探原 - 读后-. 新中醫. 2002;34(10):14-15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4
22. 이은경, 이선동, 송애진, 윤진원, 최성용, 정명수. 한방의료기관 외래이용환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특성연구 -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보고서자료의 중심으로 - 대한예방한의학회. 2014;18(2):31-45